

'자연주의 살림예술가' 이효재



#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 속으로 초대

국립민속국악원은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 명사들의 담백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진행한다. 28일 열리는 올해 첫 공연에는 문화 디자이너 이효재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 '자연주의 살림예술가' 이효재의 '살림종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무대에서는 이효재가 일구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이야기와 살림살이 노하우를 들려 줄 예정이다. 문화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아티스트,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로 불리는 이효재는 '효재처럼 살아요' '효재의 살림 종류' '효재처럼 손으로' 등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부들의 멘토가 되기도 했다.

이효재의 이야기와 함께 할 연주팀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이다. 감성적인 아카펠라와 타 장르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공연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는 2003년 결성 후 페스티벌과 단독공연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5년 국립극장에서 주최한 '한국 가요제'에서 '응혜야'로 대상을 받았다.

오는 28일 오전 11시 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는 공연은 전석 무료.

예약은 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전화(063-620-232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28일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첫 공연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도 출연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 도내 공립박물관 14곳, 문체부 우수인증 기관 선정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익산보석박물관 · 정읍시립박물관 등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도내 14개 공립박물관이 우수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 인증을 받은 공립박물관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남원향토박물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부안정자박물관, 어진박물관, 왕궁리유적전시관, 익산보석박물관, 전라북도산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정읍시립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관소리박물관 등이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전북은 17개 등록 공립박물관 중, 16개 박물관이 평가 대상이었다. 문체부는 4개 평가지표(경영전략 · 경영관리 · 사업관리 · 고객관리)를 기준으로, 서면조사와 현장평가와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14개 공립박물관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증박물관에는 인증서와 함께 '2017년 우수 박물관 인증'을 외부에公示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전주국제영화제 '서포터즈' 모집

내달 3일까지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더하기'를 모집한다.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가입비를 납입하면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멤버십 제도다.

'서포터즈' 혜택으로는 가입 시 전주국제영화제 티켓교환권 3매가 증정되고, 상영작 티켓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기념품을 구매할 경우엔 10% 할인이 적용되며, 영화제 정보지 무료 제공, 회원 전용 컴퓨터 사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포터즈 더하기'는 서포터즈 회원이 제공하는 혜택에 더하여 게스트 패키지 등 영화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인 카탈로그에 후원자로 이름이 기재되며 카탈로그를 제공받는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더하기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서포터즈는 2만원 이상의 회원 가입비를, 서포터즈 더하기는 5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결제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은 4월 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우리 주거생활의 기본인 온돌문화.

##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되나?

문화재청, 신규 종목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돌문화는 청동기~원삼국 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의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했다.

한반도 전역에서 기원전 3세기~1세기 것으로 보이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놓는 기어가게 만들어 불 윗부분을 깔고 앉는 탈화좌식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재청은 "온돌은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다. 중국 만주지방의 바다 난방과는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생활을 보여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했다는 점에서,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 예고하지 않았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